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25.(화) 10:00 배포 2023. 7. 25.(화)

디지털 기술로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강화해야

- 도시가스시설 피해·복구 상황관리 현장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강경성 2차관은 7. 25.(화) 오전,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많은 충청권 담당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도시가스시설 피해·복구 현황과 함께 재난·재해 상황관리 현장을 점검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폭우로 인한 시설·인명 피해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관망 등 설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강경성 2차관은 “극한호우, 기상이변 등 과거와 다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난·재해 관리체계를 자세히 재점검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시설의 디지털 점검(모니터링)과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한 재난·재해 위험의 예측과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지역이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재해 유형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에너지시설 재난·재해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송·변전설비 등 전력설비 피해로 인한 정전 가구 약 52,100세대(7. 13일 이후) 중 99.9%에 대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7. 24일 17시 기준), 이 밖에 크고 작은 에너지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복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취약시설 점검과 주요 설비 안전관리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 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관리 및 재난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덕열 (044-203-5230)
		담당자	서기관	김정윤 (044-203-5231)
		담당자	사무관	정한솔 (044-203-5216)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호성 (044-203-5120)
		담당자	서기관	서성민 (044-203-51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